

自然保護「운동」有感

— 자연보호운동 10년을 뜻한다 —



朴昌根

〈(社)環境教育會會長〉

1.

1977년 그러니까, 江山도 변한다는 10년 전에 이나라에서는 자연을 보호하는 「일」이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다.

축구시합도, 야구경기도 아닌 「일」을 「운동」으로 시작한 자연보호는 처음부터 시행착오였다.

아니, 최초의 시도는 어쩔 수 없는 당연이었다.

자연보호를 제창한 故 박정희 대통령은 생물학자나 환경보호주의자가 아니다.

고인은 군인이었고, 정치가였다. 그래서 더럽혀지고 파괴된 자연을 우선, 깨끗하고 아름답

게 정화해 놓은 후, 보다 생태학적이며, 합리적인 자연보호를 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먼저 山河의 오물을 치우면서 자연을 보호하자고 제창했다.

그 바쁜 國事에도 불구하고 「우이동」, 「정릉」, 「도봉산」 골짜기에서, 깨진 병 조각을 줍고, 라면 봉지를 주웠다.

한달, 두달, 석달, 山쓰레기는 주워도 주워도 줄지 않고 늘어만 갔다.

어인 일이나?

어찌잔 말이야?

혹시 자연정화를 하는 대통령이 심심해 할까 보아 전날 밤에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나라의 제일 높은 어른이 손수 쓰레기를 줍는데, 그대 또 쓰레기를 버리는 무엄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가정의 작은 마당에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 하나를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주웠다고 하자, 그러면 다시는 마당에 담배꽂초를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할 것이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손수 쓰레기를 주워도, 「우이동」 「정릉」 「도봉산」에서 주워도 주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가 매 주 쏟아져 나오는 것은 어인 일이나?

무엄한 백성이다.

한심한 백성이다.

2.

대통령이 쓰레기를 주으며 자연을 보호하자고 하나, 쓰레기 줍기가 자연보호 「일」인줄 알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버릇마냥 쓰레기 줍기를 신나는 운동으로 전개한다.

너는 버려라, 나는 줍는다! /

나는 버린다. 너는 주워라! /

열심히 버리고, 줍고, 줍고, 버리고 정말 신나게 운동을 펼쳐가는데 ...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으니... 쓰레기 줍기가 자연보호 운동이 되고, 자연보호 운동이 쓰레기 줍기가 되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아니고등학교에서도 자연보호는 쓰레기 줍기라는 기상천외의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년센스가 자연보호의 定義로 등장했다.

한심해도 이쯤되면 국제적이에요, 서글퍼도 이쯤되면 세계적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답답했고, 나도 답답했으며 자연도 답답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는 자연보호 운동.

그 「운동」에 어울리게 쓰레기 줍기 경진대회도 열고, 쓰레기 많이 주운 사람에게 상도 주자, 너도 나도 집에서 쓰레기를 배낭에 담아 오는 X X놈도 등장하고 ...

이래 저래 우리의 자연은 파괴될 때로 파괴되고, 훼손될 때로 훼손되어, 금수강산이 쓰레기 강산으로 다시 공해 강산으로 변해 왔다.

너는 주워라. 나는 버린다! /

나는 줍는다. 너는 버려라! /

신나는 「운동」이 신나게 이어진 자연보호 운동 10년! /

3.

미국의 시에라(Sierra) 클럽 LA. 지역 책임자인 「존스」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한국민의 자연보호 활동에 감탄했습니다.”

첫마디가 시비조(?)라, 들은 척도 않고 “경주의 불국사나 관광하라”고 하자...

“아니 한국인들의 생태계에 대한 지식수준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다”며 또 흥분한다.

그래서 좀 짜증 섞인 말투로 “제주도에 가면 볼만한게 있을 것이라”고, 하자...

「존스」씨 그게 아니라며,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보여 준다.

「KOREA」 어느 부처에서 발간한 영어판 한국 소개 책자였다. 그 책의 뒷부분의 쪽을 펼쳐 보여 주는데 ...

Nature protection 이라는 제하에, 우리의 쓰레기 줍기 자연보호 운동이 소개되어 있다.

「존스」씨는 흥분해서 말한다. “이 사진의 사람들을 보세요.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여가 군인(얼룩무늬의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학생들이 개여울 속에 발 벗고 들어가 수중 생태계를 조사하죠? 그리고 여길 보세요. 주부들이 공원의 잔디를 조사하죠? 그 뿐입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군인(예비군)들이 한결같이 토양 생태계를 조사하는 것을 ...

이렇게 생태계 조사를 폭 넓게 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존스」씨가 펼쳐 보여준 책자에는 우리의 자연보호 운동 모습이 화려한 컬러사진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개여울 속에서 깨진 유리병 조각을 줍고, 공원의 잔디밭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등산로에서 쓰레기를 줍는 한심한 모습이 ...



그 스틸 사진을 「존스」씨는 생태계 조사로 본 것이다.

그 사람 나라의 개여울에는 깨진 유리병 조각이 없고, 공원의 잔디에는 쓰레기가 없고, 등산로에는 라면 봉지가 없으니... 그것이 상식이라 우리의 부끄러운 일을 알기나 하라...

4.

자연보호는 「내무부」가 관장하고, 환경보호는 「환경청」이 관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연과 환경 정책이다.

즉, 자연은 자연이고, 환경은 환경이라는, 도무지 말도 안되는 기막힌 꼴로 10년을 버텨 왔다.

「내무부」가 오염된 강에 물고기 새끼를 풀어 주고 자연보호 했다고 우기고, 배기가스 도로변에 꽃화분 몇 개 갖다 놓고 자연보호라고 할 때...

“너는 ppm이나 따져라, 나는 새의 숫자나 세어 보겠다. 나는 물고기를 생각할테니, 너는 BOD나 걱정해라.”고 할 때... 우리의 자연은

자연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더욱 파괴되고, 오염되어 왔다.

어느 때, 어느 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

「나」편리하게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라 해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손바닥도 손이요, 손등도 손인데, 손바닥만 손이고 손등은 손이 아니라니...

환자는 의사의 손에 맡겨야 하듯이 환경문제인 자연보호는 「환경청」에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病드는 것은, 하나인 환경과 자연 뿐이다.

5.

자연보호의 참 길은, 자연을 자연 그대로 가만 놔 두는 것 뿐이다.

더도 말고 DMZ의 경우만 보라!

인간의 머리로, 콩이다 팔이다 해 보았자 콩심을 땅이 아니면 콩이 안되고, 팔 심을 땅이면 팔이 된다.

그리고 자연은 결재서류용도, 행정명령용도 아

님을 깨우쳐야 한다.

자연은 스스로 태어나, 살고, 죽어, 다시 생명을 탄생시킨다.

6.

「자연보호 헌장」부터 우리의 헌장으로 바뀌야 한다.

남의 나라 「자연보호 헌장」을 훔쳐온듯, 베낀 듯한 헌장으로 우리네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 그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

「헌장」하나, 제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자연보호는 애당초 틀린 노릇이다.

늦었으면 늦은대로, 더 늦기 전에 잘못을 깨닫는 정직한 마음이 자연보호의 첫 걸음임을 명심하라.

7.

자연보호 「운동」 10년!

깨끗하고 아름답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아, 무조건 깨끗하고 아름답게만 하기 위해, 아우성이다.

정말, 필요한 것은 「조화」와 「균형」인데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보여야 하는 것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생태계는 敵이 되고, 아름답지 못한 뱀은 전부 「뱀탕감」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한강」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면 되는 서울시界만의 「綜合開發工事」였다.

그 「한강」에 유람선이 다니고, 낚시터가 생기고 水上이용에만 열을 올리니 그래서 생태계는 「한강」을 恨江이라고 부른다.

정말 필요한 것은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있을 곳에 있을 것이 있고...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모두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자연보호 「운동」 10년이 편견과 아집을 강요한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자연보호 「일」은 정말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 더 늦기 전에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8.

자연보호에는 정성이 깃들어야 한다.

몇장의 포스터나, 몇 마디의 구호로 또 몇 차례의 결재서류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눈과 마음을 키워주어야 한다.

자연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은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귀한 것은 아끼게 된다.

그런 눈과 마음을 키워주면 자연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이유가 없다.

9.

정말 자연을 보호할 생각이려면, 자연에 대한 일체의 인위적인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자연보호 「운동」이라는 「행사」도...

그리고 환경과의 통합된 보호대책을 위해, 「자연보호 업무」는 마땅히 「환경청」에 이관해야 한다.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이야기이다.

10.

자연보호 「운동」 10년에 얻은 것은 결재서류상의 실적이요, 잃은 것은 순수한 자연생태계 뿐이다.

그래서 오늘 자연보호 「운동」 10년을 슬퍼하고 여기 早死한 자연에 弔詞를 띄우는 것이다.